

“모래내시장, 화재위험성 높다”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정례회 시정질문

“전기·가스안전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 대책 미로형 시장 특성상 소형 소화장비 등 확보를 시, “개별점포에는 미설치된 곳 많은 실정”

전주시의회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사진)의원이 미로처럼 얽힌 전주 모래내시장의 화재 재난 방지 대응책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11일, 전주시의회 제3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모래내시장 화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전기 및 가스안전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미로형 골목 시장의 특성상 소형 소화장비 및 소화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전주모래내 시장은 주거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건물과 2·30년 이상 노후건물이 밀집된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한데다,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 복잡한 미로식 통로구조로 인해 화재피해가 급속도로 확산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상가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치되어 있다 해도 노후 또는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전기 및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 임의 설치변경, 노후전선 방지 등”을 꼬집었다.

아울러 “화재보험 가입도 저조한 실정과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도로 확보 되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신장에 스프링클러, 소화전, 화재감지기, CCTV 등을 설치했고 현장대응 훈련,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

만으로도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시장의 특성상 불법 주차차량과 상가 물건 적치 및 불법 가판대가 설치되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전통신장은 시장 환경 특성상 무허가 건물이 많아 일반 민영보험회사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지난 2017년 중소기업부에서 무허가 건물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통신장 화재공제’ 상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쉽게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다”며, 이에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점포당 화재보험료의 60%, 최대 12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험혜택에 대해 집중 홍보, 보험 가입율을 더 높이기 위해 전문 공제상담사를 지원받아 현장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대회 감독관은 혼합형 오프라인·온라인 방식에 참여, 고등부 전체에서 대상을 받은 하건현(가명) 학생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꾸준히 노력하면 훌륭한 미용인이 될 것이다”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용 예술경연대회를 지도했던 신



전주소년원은 11일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제11회 전북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 4명이 참가해 대상 1개 그랑프리 1개 금상 2개 동상 1개 등 5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훌륭한 미용인이 되도록”

전주소년원,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 5개종목 입상

전주소년원은 11일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도 제11회 전북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대한미용사회 전북지회 주최, 전북도후원)에 4명이 참가하여 대상 1개 그랑프리 1개 금상 2개 동상 1개 등 5개 종목에서 입상했다.

대회 감독관은 혼합형 오프라인·온라인 방식에 참여, 고등부 전체에서 대상을 받은 하건현(가명) 학생에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다”며, “꾸준히 노력하면 훌륭한 미용인이 될 것이다”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용 예술경연대회를 지도했던 신

은수 교사는 “일반 학생들과 겨루는 경기에서 평소 노력하고 단련된 기술들을 긴장하지 않고 잘 발휘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지도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연호 전주소년원장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노력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미용경연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욕을 자극 하는 한편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즉각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즉각 취소 등을 요구하며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교통불편 없는 편안한 추석

전북경찰청, 15일부터 연휴 단계별 특별교통근무

연휴기간 상황실 운영·고속도로 등 정체 상황 관리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민이 안전하고 교통불편 없는 편안한 추석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근무를 단계별로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1단계(15일~20일)기간에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묘지, 터미널, 역 등 혼잡장소에서 교통소통위주의 집중 관리를 하고, 2단계(21일~26일) 본격적인 추석명절 연휴기간에는 각 경찰관서별 교통상황실을 운영, 고속도로, 국도 등 귀성·귀경길 교통 정체 상황 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매일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 상설중대 등 430여명, 순찰차·경찰오토바이·헬기 등 140여대를 집중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연휴기간은 주말 포함 5일로 짧아 귀성길 교통량이 집중되 지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추석 당일인 24일은 성묘·나들이 차량 혼재로 국도정체가 예상된다.

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

용하여 전용차로, 갓길위반 등 정체 및 사고 요인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난폭, 보복운전에 강력 단속 예정이다.

한편, 경찰 헬기를 이용, 혼잡지역 정체 해소를 위해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 교통관리를 하고, 고속도로 혼잡구간, 연계 국도, 지방도 등 병목구간도 집중 교통관리 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각 시·군 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정구간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기간: 9.13~10.7)하고, 공원묘지, 대형매장, 전통시장, 터미널, 역 등에 혼잡장소에 교통경찰을 최대한 배치하여 소문위주 근무를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귀성, 귀경객들이 먼저 가고싶은 조급한 마음에 피라불기와 끼어들기 등 무질서 운전으로 오히려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므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특히,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 또는 사망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소중한 내 가족과 운전자 본인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불법촬영 OUT, 클릭은 ZERO’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봉)는 12일 전주시 서신동 일대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

센터에 따르면 ‘불법촬영OUT, 클릭ZERO’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디지털성

범죄 근절을 위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 대(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불법 촬영과 유포 뿐 아니라 유포된 동영상은 시청하는 것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동네 만들기

전주시 조촌동, 광주 서구 상무2동 방문 벤치마킹

윤승기 전주시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과 조촌동 공무원 등 20명은 민관협력 동네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2동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상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쌍쌍이촌’의 다양한 마을복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이번 견학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봉사정신 함양 및 인식개선 등 전문적 역량강화와 민간협력 자원 확대 및 지역에 맞는 신규 특화사업 발굴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동네 조촌동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광주상무2동 서기수 위원장의 지원

봉사 역할 및 자세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상무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복지사업 소개, 문제점, 해결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와 복지지원 연계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유했다.

윤승기 조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서기수 위원장의 강의를 통해 협의체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전문성을 더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이곳에서 배운 노하우와 활동 사례를 접목하여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조촌동에는 손이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식서비스 창업 허브 ‘톡톡’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업터 최종평가

8개 창업팀 최종 선정 국비 1억3460만원 지원받아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사물인터넷과 앱·웹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분야 창업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스마트창업터 사업’의 사업화지원 최종평가에서 8개 창업 팀이 최종 선정돼 국비 1억346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창업터’는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한 후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민스타트업 방식을 이용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창업팀은 △종합 언더그라운드 힙합플랫폼(박승조 대표) △여성전용 대리운전 앱(이재건 대표) △중국어 맞춤형 1:1 화상 한국어 교육 앱(곽소결 대표) △조경수 거래 중개 플랫폼(권영립 대표) △외국인 단기 여행가이드 상품 플랫폼(이선호 대

표) △한류 K콘텐츠 제품 커뮤니티(김성복 대표) △스마트블라인드(김삼기 대표) △식사의 품격을 주는 밀키트 플랫폼(조영현 대표) 등이다.

이들 창업팀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서비스 관련 창업아이템과 사업 추진의 지, 시장성, 성장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창업팀은 약 5개월간 협약을 맺고,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금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받아 창업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앞서, 시와 진흥원은 스마트창업터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24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하며 지역 내 창업기업 발굴해 오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발굴한 창업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시제품제작 지원 외에도 진흥원이 보유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수입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둔갑

전통신장서 8억여원 상당 판매... 전북농관원, 판매자 구속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수입산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7.9톤, 8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정읍시 소재 A축산 대표 C(38)씨를 11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주 C씨는 소비자들이 수입산보다 국산을 선호하고 국산과 수입산 축산물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장기간(3년 7월)에 걸쳐 돼지고기 쇠고기를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 정성가격으로 판매’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이 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과 10월 전북 익산 전국제전 기간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하여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먹거리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순반의 단순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 감시기능이 중요할 때 원산지를 확인,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법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은 5만~200만원이다.

/김영태 기자